

민주 전대 호남후보 단일화 가능할까

강기정·이용섭·김동철·이낙연·박지원·유성엽 등 6~7명 지도부 진입 노력

모두 출마면 전멸 가능성... '교통정리' 필요 지적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주자들이 대거 지도부 진입을 노리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거론되는 호남 주자들이 6~7명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광주에서는 이용섭, 김동철, 강기정 의원이 지도부 경선 참여를 적극 검토하거나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남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광복 행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상황에 따라 지도부 경선에 나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유성엽 의원으로 사실상 단일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외에서는 전북의 정동영 고문과 전남 출신의 천정배 전 의원이 지도부 진입을 통해 정치 일선 복귀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의 역학구도를 감안하면 호남 주자들이 확보할 수 있는 지도부 티켓은 최대 2장이라는 관측이다.

단일 지도부제일 경우, 당권 주자 1명과 최고위원 주자 2명 정도가 적당하고, 집단 지도부제가 유지된다면 호남 주자는 최대 2명으로 압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남 주자들 간의 원만한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호남 표심의 분산 등으로 지도부 입성이 모두

좌절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정리는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북에 유성엽 의원이 버티고 있는 데다 정동영 고문의 출마가 현실화된다면 그만큼 광주·전남지역 주자들의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김동철 의원은 현재 비대위원이라는 점에서 전대 출마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한, 강

기정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대선 패배로 당내 입지가 약화될 주류 측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 약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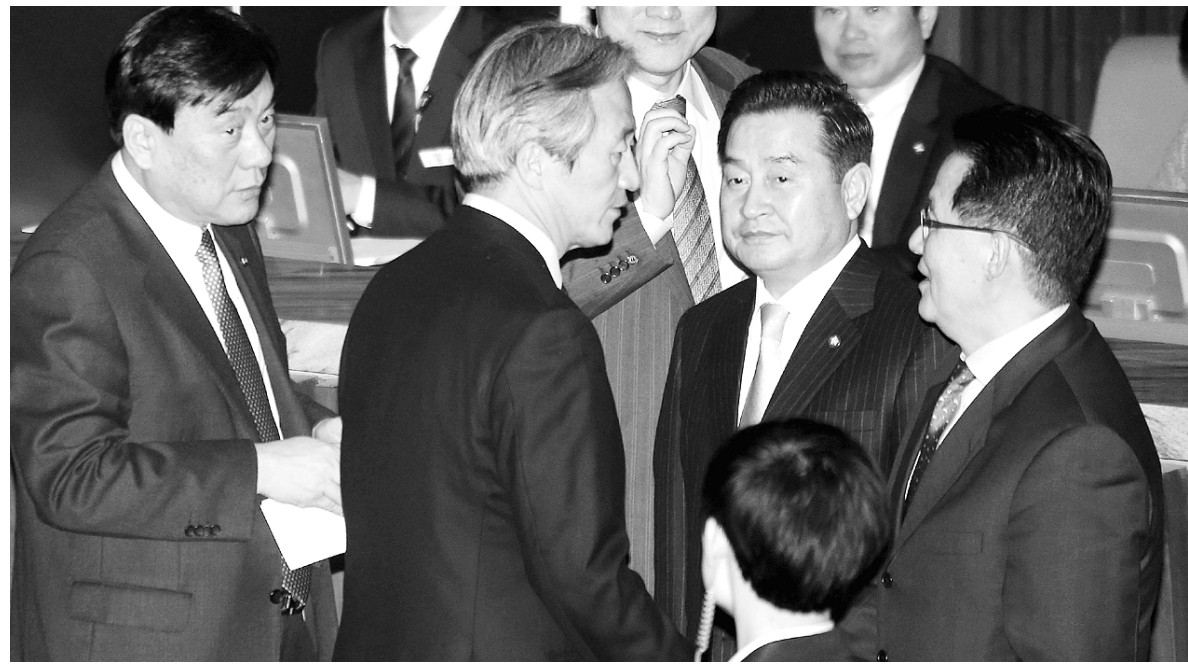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대선 패배의 후폭풍에 정치적 행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호남과 민주당의 위기라는 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당대회 이전에 회동을 갖고 호남의 정치력 회복 등을 위한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단지도부제든 단일 지도부제든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경선에 나선 주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인위적인 단일화보다는 컷-오프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의원은 "현재로서는 지도부 진입을 노리는 호남 주자들의 단일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호남지역 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민주당과 호남의 미래를 위한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 4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협뉴스

안철수 정계복귀 무르익나

정치권 신당론 확산... 10월 재보선 이후 구체적인 시기도 거론

금태섭 변호사 "대선 준비 부족... 어떤 형식이든 조직 만들 것"

안철수 전 교수의 정계 복귀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고 있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신당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오는 10월 재보선 이후를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 전 교수가 이르면 3월 내에 귀국,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안 전 교수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지난해 대선에서 안철수 무소속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았던 금태섭 변호사는 "안철수 신당론"과 관련, "어떤 형식이든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난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정당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보름 전에 안철수 전 후

보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다"며 "안철수 전 후보가 계속 정치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안 전 후보가 대선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했다고 많이 느끼고 있다"며 "지자체 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관계와 관련, 금 변호사는 "작년 총선과 대선은 물론 아권의 중심세력인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런 것을

잘할 것 같다'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 스스로 개혁을 집중해야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리를 뒀다.

이처럼 안 전 교수의 정계복귀가 점차 구체화되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노심조사하는 모습이 다. 안 전 교수의 정계복귀가 올 상반기 내에 이뤄진다면 민주당의 전열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안 전 교수가 전당대회 이전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곧바로 정계에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는 10월 재보선 전후에 안 전 교수의 정계 복귀가 이뤄진다면 민주당도 전열을 정비한 상황이어야 상호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낮은 자세 '공정' 소통 부족 '비판'

인수위 출범 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일로 출범 한 달을 맞는다.

지난 6일 발족한 인수위는 그동안 '낮은 자세'를 표방하며 새로운 정책의 생산보다는 원활한 인수·인계에 방점을 찍고 국정과제 선정 등 새 정부 출범에 필요한 밑거름을 벌여왔다. 때문에 과거 인수위에서 벌어졌던 공무원 군기 잡기는 사라졌고 전(前) 정권과의 마찰도 상당 부분 줄었다는 게 긍정적 측면으로 평가된다.

또 낮은 출범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교적 무난하게 도출했고 차기 정부 5년간 공약이행 로드맵인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작업도 정부 업무보고와 당선인 보고 절차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르면서 연휴 전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안 중시 인사 스타일 때문에 '밀봉인사', '불통인사' 논란을 낳았다. 사전에 압축된 후보군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자연스런 검증이 이뤄지면서 여론의 항배를 살펴온 관례와 달리 박 당선인은 발표 전까지 철저한 보안에 붙이는 바람에 인사 후에 논란이 불거지는 일이 반복됐다. 인수위의 정책 활동 역시 술한 불통 논란을 낳았다. 정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소개하지 않겠다고 '노 브리핑'을 선언했다가 비판론에 밀려 브리핑에 나서기도 했다. 그나마도 업무보고 제목을 읽어주는 수준이어서 부실 브리핑 눈치를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투트랙 인사청문제도' 논의 착수

도덕성 '비공개검증'·정책역량 '공개검증'... 내부 이견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시행 인사 청문 제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자 새누리당이 4일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달 31일 인사 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조만간 인선을 끝내고 활동 방향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망 있고

유능한 공직자를 선택하는 한편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공개회의와 문답조사를 거쳐 윤리적 흠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를 통과하는 후보자에 한해 직무수행 능력은 공개리에 철저히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청문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을 끝내야 한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문절차를 개선하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구주류 친이(친이명박)계인 조해진 의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비공개 신상검증 방식에 대해 "비밀이 유지돼야 취지 살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설령 청문회의 비밀이 유지된다 해도 언론이 별도로 취재해 신상을 검증하는 것을 법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학년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1. 석사과정(야간)

- 모집전공: 공공행정전공, 자치행정전공
- 수강지역: 광주반, 여수반, 남약반
- 원서 접수 기한: 2013. 2. 14(목) 18:00 까지
- 전형방법: 면접 및 필답고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cnugpa.kr) 참조 바람

2. 최고정책과정

- 모집대상: 정치인, 법조인, 고위공무원, 경영인 등
- 원서 접수 기한: 2013. 2. 22.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과정 (매주 월요일 야간강의)

3. 관리자과정

- 모집대상: 공무원, 기업체 경영인 및 임직원, 각종 사회단체인
- 원서 접수 기한: 2013. 2. 22.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 까지 1년 과정 (매주 목요일 야간강의)

4. 문의사항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실
- 전화: (062)530-5196, FAX: (062)530-2266
- 홈페이지: http://cnugpa.kr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 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6기)	광주교육대학교(7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3.3.8.(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3.3.9.(토) 09:10 (중급반)	·월·목 야간반 2013.3.4.(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3.3.7.(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3.3.9.(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1.24.(목)~3.9.(토)	2013.1.24.(목)~3.9.(토)
수업기간	2013.3.8.(금)~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3.4.(월)~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범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NPL투자

- ▶ 낙찰 받기가 유리하다
- ▶ 대출이 많이 된다
- ▶ 소자본으로 가능하다
- ▶ 투자금 회수가 빠르다
- ▶ 양도소득세가 없다
- ▶ 수익률이 높다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경매비법 전수

- ▶ 회비: 개인 1,100만원, 공동 550만원
- ▶ 혜택: 1인 1물건 낙찰 보장, 교육/임장비 등 일체 평생 경매 상담 무료, 사무실 사용 등등

(주)오현경매 H.010-4667-9300